◇故 명원 김미희보살의 차문화보급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명원문화재단이 발족됐다. 사진은 차문화교육의 산실이 될 명원문화재단의 650여평 정원. 2동의 건물이 수련원으로 사용된다.

◇명원문화재단 개원 및 한국차생활문화원 이전 현판식법회에서 다성(茶聖) 초의스님과 김성곤·김미희부부 영정에 헌다(獻茶)를 하고 있는 김의정이사장(왼쪽)과 감승희원장. 茶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성북동에 茶도량 생겼다

명원문화재단·차생활문화원 "차문화보급은 정신운동"

내년 초파일 40여평 '茶亭' 개원

"차향 퍼지는 사회 건강해져요"

서울에서 절이 가장 많다는 부처님 동네 성북구. 성북구 성북2동 330-508번지에 차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창의적 생활문화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회윤리도덕의 고양을 모색하기 위한 차문화도량(茶文化道場)이 생겼다. 〈본지 101호 4면 참조〉

"나라가 잘되려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래의 어머니가 될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비롯 젊은 이들에게 차정신을 비롯 전통문화를 교육시켜 건전한 정신을 선양시키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하여 손을잡은 '명원(茗園)문화재단'의 김의정이사장과 사단법인 한국차생활문화원 감승희 원장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故 김미희보살과 성곡 김성곤회장의 6남매중 둘째딸인 김의정이사장은 어머니 김보살의 차문화보급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어머니의 호를 딴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을 창립했다. 성북동에 위치한 650여평을 선뜻 기증하고 이천에 있는 수만평 농원도 재단을 위해 쓰기로 했다.

명원 김미희보살은 70년대 초반 일본 방문중 "한국에서도 차를 마십니까?"라는 질문에 충격을 받고 우리 고유문화인 차에 대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며 차문화보급에 적극 나선 선각자적인 인물. 차의 성지 일지암복원에 앞장섰으며 차인협회를 결성하고 전통다례연구발표회도 수차례 가졌다. 지난 1977년 신수대장경 100질을 출간했으며 조계사 신도회장을 역임하기도 하는 등 불교계 일에 많이 동참했다.

명원문화재단은 내년 초파일을 기해 40여평되는 다정(茶亭)을 개원한다. 순한식 토담집으로 지어질 다정은 차보급을 위한 일체가 갖춰진 전문 차문화센터가 될 전망이다. 다기 전시, 각 다례와 차관련 토론회, 이벤트행사 등이 개최되는,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린 장소로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차의 확산을 위해 차를 마시는 기구인 도자기의 저렴한 보급과, 허브차 당귀차 등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통차의 보급, 차에 관한 쉬운 책자발간, 차요리개발, 우리 콩으로 장담그기 운동 등 다양한 전통문화사업도 펼친다.

감승희원장은 70년대 우리나라에 차가 겨우 움트고 있을때 인사동에 다구상설전시장을 만들고 차무료강좌를 열어 차보급에 나섰던 명원선생의 애(愛)제자. "3년 가까운 무료 차강좌에서 천여명이 넘게 수강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국제차행사에도 참여하게 됐고 차생활을 지도하는 지도자양성도 시작되었지요."

명원재단과 차문화원은 공동으로 내년 5월, 문화인물로 초의선사가 선정된 것과 제17회 차의 날 기념행사로 '고려연등의례'를 재현할 예정이다. 고려때 국가의식이었던 상원연등회의식을 덕수궁에서 그대로 재현시킨다는 것. 또한 오는 26일부터 6일간 고교졸업반 학생들을 위해 차교육 등 교양강좌, 노래와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하는 길라잡이 시간도 제공하여 수능이 끝난 청소년들을 선도할 계획도 잡아놓고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왜 어머니가 선각자의 자리에 나서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삶의 근간인 농촌에서부터 차 운동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김의정이사장과 감승희원장은 차를 즐겨 마시는 풍조가 확산되면 차향만큼이나 향기롭고 윤리 도덕이 살아있는 건전한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숙 기자

"'불밭에 피는 꽃'이란 탐욕과 번뇌로 불타는 중생들의 삶 속에서 한줄기 연꽃처럼 피어나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상징합니다. 내용과 곡이 아름답고 절절해 연습하는 도중 단원들과 함께 많이 울었습니다. 국악공연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고 연습에도 보통 심혈을 기울인 것이 아닙니다. 노력의 결과가 무대에서 잘 발휘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오는 19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리는 국악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을 연주하는 4백여 합창단의 지휘자 정옥녀씨(청룡사 마하합창단 지휘자). 정씨는 특히 이번 무대가 청룡사 마하합창단 창단 20주년을 결산 기념하는 무대라 유난히 감회가 깊다고 토로한다.

인터뷰

19일 국악교성곡 '불밭에…' 지휘 정옥녀씨

"지장보살님의 서원 선율에 담아 대중공양해요"

청룡사 마하합창단 20년 결산·천일지장기도 회향

"마하합창단이 창단된 1976년 경만 해도 교계에는 사찰 합창단이 다섯손가락으로 셀 수 있었습니다. 찬불가의 개념도 희박했고 찬불가도 얼마 없던 시절이라 몹시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온 것은 오로지 신심 하나로 매달린 결과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찰마다 합창단의 중요성을 알고 사찰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쁘기 그지 없지요."

훤출한 키와 당당한 모습으로 까만 연미복이 무척 어울리는 정옥녀씨가 무대에 오르면 그 정열적인 지휘모습으로 좌중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씨는 삼보법회 대학생 합창단 인연으로 시작하여 15년전 고 김용호씨에게 지휘공부를 하며 본격적으로 합창단 지휘에 뛰어들었다. 청룡사는 주지 법운스님이 음악을 사랑하고 관심이 지대해 20년을 이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지스님에게 고마움을 느낀다고. 특히 법운스님은 3년전에 시작한 천일지장기도를 이번 공연과 더불어 회향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한다.

마하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외에 크고 작은 불교음악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일본 대만 미국 등 해외 초청공연도 가지며 한국의 불교음악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청룡사 마하합창단외에 대한불교합창단 묘각사 한마사 홍륜사 등의 합창단 지휘를 맡고있는 정옥녀씨. 현재 김규환씨에게 작곡을 배우고 있다. 또 중앙대 음대 대학원서 수업중이다. 직접 작곡한 곡으로 부처님께 음성공양 올리는 것이 꿈이다. 〈숙〉

◇신상철씨 ◇이필이씨
◇배복도씨 ◇정일스님

마산창원불교연합회 6회 시민불교문화상

문학상—신상철씨
예술상—이필이씨
언론상—배복도씨
봉사상—정일스님

마산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안)는 향토문화와 언론창달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제6회 시민불교문화상을 확정 지난 3일 마산 사보이호텔 4층 대연회장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시민불교문화상 문학상에는 신상철(경남대교수) 예술상에 이필이(무용가) 언론상에 배복도(전 경남매일수석논설위원) 봉사상에 정일스님(감로심장회 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찰흙으로 탑빚기 재미있어요"

화순 운주문화대축제 현장

레이저 와불세우기·별자리탐사등 '눈길'

화순 민·군 화합 "지역문화 활성 계기로"

"부처님을 만드는 것이 너무 재밌고 자랑스러워요."

"찰흙으로 만드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돌로 잘 만들었을까요."

"우리 고장에 있는 운주사에서 이러한 행사가 열리고 직접 탑도 만들어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지난 2일 열린 '96 화순운주문화대축제의 천불천탑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화순군 춘양면 춘양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소감이다. 천년여전 천불천탑을 만든 선조들의 솜씨가 그대로 이어진듯 어린이들은 능숙하게 찰흙을 주물러 와불 등 부처님과 탑을 만들어 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양식과 수법의 석탑 18기와 석불 1백여구가 산재해 있는 운주사는 그 특이한 탑과 불상과 거기에 스며있는 전설로 인해 문학 미술 사진 등 예술인들이 창작의 중요 소재지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천불천탑의 신비를 안고 있는 운주사를 주제로 화순군(군수 임흥락)이 주최가 되어 '화순운주문화축제'를 10월 31~11월 3일까지 4일동안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화순군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는 이벤트성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함양과 나아가 국제적인 행사로 정착시키기 위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전야제격인 청소년 어울마당을 시작으로 '민속공연 한마당' '학술심포지엄' '천불천탑만들기' '와불세우기' '궁도대회' '별자리탐사' '호박요리경연' 등 재미있으면서도 이색적인 행사가 많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천불천탑만들기는 어린이를 비롯 중고생 대학생, 온가족, 단체로 온 신도들, 외국관광객 등 누구에게나 점토를 제공, 마음껏 불상과 탑을 조성케 해 가장 인기있는 코너였다. 주최측은 축제기간동안 조성된 천불천탑을 모아 천여년전 천불천탑을 만들때의 염원을 담아 전시했다.

2일밤에는 누워있는 와불이 일어나는 기적이 벌어졌다. 넓은 잔디밭에는 스크린이 설치돼 레이져 광선으로 와불이 일어섬과 동시에 한옆에서는 5m×5m의 흰 천에 김복환 박수만씨가 그린 대형 걸개그림 와불이 같이 일어선 것이다. 와불이 일어서는 날 나라가 통일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이루어진다는 운주사전설이 첨단기법인 레이져로 현시화된 것. 사람들의 가슴에는 환희심이 넘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일었고 경내를 밝힌 연등이 걸려있는 탑주위를 자연스럽게 돌며 민족통일을 간절히 기원했다.

◇선조의 솜씨를 이은듯 춘양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능숙하게 천불천탑을 만들며 기뻐하고 있다.

화순=이경숙 기자

화제의 전시회

현찬스님 판화서각전

안산 올림픽기념관

현찬스님의 판화서각전시회가 오는 18일~26일 안산시 올림픽기념전시관 3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다보사불사기금마련을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안산불교사암연합회가 후원한다.

유영교씨 조각개인전

인간의 삶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유영교씨의 조각 개인전이 오는 14일까지 중구 다동 동아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불교 기독교 도교 등 종교적 상징물을 모티브로 표현한 이번 전시회에는 특히 국보 반가사유상과 형태가 같은 '사유'〈사진〉가 눈길을 끈다. 유영교씨는 홍익대 조소과를 나와 이탈리아 국립 로마미술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행자 스님을 모십니다

부처님전에 출가할 20대 여성 (고등학교~대학 졸업 환영) 행자님을 모십니다.

연락처 0463-32-2805

보리수
취급품목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디스크·관절염·비만 시술 및 개인지도
◆ 각 관절·척추 ·골반 ·교정법
◆ 음양오행 ·기공 지압법
◆ 목·허리 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비만·중풍예방 시술 ·지도
전화 : 543-7306·711-4370
長三洙 척추교정·지압원

小白山 령통사
산세가 수려한 곳에서 기도및 휴양하실 몇분을 모십니다.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 숙식 제공 및 1인1실·기름보일러
연락처 : (0444)22-1094 22-0347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닫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닫집, 법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닫집외 등
구로동 원응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닫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011-266-6485

늙지않는 피부관리 남·여
기미 여드름 검버섯 늘어진 얼굴
완전회복
⊙ 불로향 요법 효능
얼굴에 불로향 원료를 바르면 코를 통해 흡입되어진 불로향 성분이 신경계를 통해 뇌에 전달되어 뇌의 작용을 활성화시켜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피부노화 방지, 피부세포 재생효과 피부의 살균과 청정 향기 미인을 만든다. 미남을 만든다.
불로는 늙지 않는다는 뜻을 갖는데서 불여진 명칭, 불로향 독특한 피부미용법
100% 고객만족과 미인 미남을 약속할 수 있는 불로향
불로향피부관리회원모집
압구정점 ☎3443-0996 현대고교 건너편
강남전철역점 ☎563-5791 뉴욕제과 건너편 다이하드골목코너 불로향 피부관리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포교당 안내
●위 치 : 신림 7동 ●평 수 : 100평
●법 당 : 10평 ●요사처 : 12평
●금 액 : 1억7천만원(가격조정가)
연락처 : 856-9798 792-4075

포교당 안내
●위 치 : 망우 사거리 ●평수 : 30평
●보증금 : 천만원(월 40만원)
●시설비 : 천만원
●연락처 : 02)494-3929 0573)73-3464 011-218-6055 011-535-3321 012-296-6055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수 : 36평
■보증금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사찰안내
▶위 치 : 충북 ▶요사채 : 20평
▶법 당 : 10평 ▶대 지 : 94평
▶가 격 : 7천5백만원
전화 : 0373)374-4459

포교원 운영하실 분
주석하시던 스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후임자를 찾습니다.
위치 : 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 : 50평 (시설 일체완비)
비용 : 보증금 3000만원
시설일체 1800만원·월세 48만원
연락처 : (02)245-0904
※ 운영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기도·수양 하실분
◆ 1인1실 ·욕실완비
◆ 비용 : 월30만원·숙식제공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반석1리 불광산 정토원
전화 : 0338)71-8209·8210

동불·탱화 순금불사·불상제작

탱화사
주 소 : 성북구 정능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 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工 합장